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 21면에서 계속

가지다. 그러면 새로 생산될 건 생산되고 바로 녹여 버리는 건 녹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환을 면하고 우환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넓히면 그 넓힌 그 마음이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때에 내 근본의 인간이 거기에서 뚜렷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공부할 새가 뭐 어딨느냐고 그러겠죠. 아니, 그게 바로 공부라는 이름이 아닌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거, 그런 거 저런 것을 다 맡겨 놔야지 그것이 녹아 버리지, 만약에 나로부터 생긴 건데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면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존께서도 육 년 동안 앉아서 그 모든 것을 고행하실 때 모두 항복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항복받은 것은 왜냐. 내 몸의 중생들, 모든 것이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그게 모습을 바꿔서 자꾸 앞에 탁탁,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걸 부처님께선 '아,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억겁을 통해서 살던 그 습의 모습을 다 항복받은 거죠. 이 원점 한 점에다가, 입자 하나에다가 그냥 모두 몰아친 겁니다. 그러니 항복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항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지탄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온 거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다, 이건 이유일 뿐이에요.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 내놔야 모두 그것이 아주 똑바로 철두철명하다고 하지만 철두철명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부터 철두철명해야 바깥으로도 철두철명한 거예요.

내가 안으로 기필코 눈이 밝고 청림하고 참, 오고 감이 없이 그 오관을 다, 다섯 가지를 내가 부릴 줄 알아야, 소소영영하게 철두철명하게 찰나찰나 응용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참인간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 이 자원에 있다 이겁니다. 모든 건 거기에다가, 거기서 한 일이니까 거기에 놔라. 그런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나온 어떠한 잘못,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거라고, 거기서 한 거니깐 거기다 놓는 거뿐입니다.

우리가 인간 하나다 해도 하나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 하나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모여서 사람이 됐을까요? 중생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부처가 하나 났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그 속에 중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중생이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성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다면 그 중생들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 중생들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이 한데 모여서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나왔다면 그것을 이끌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 수만 억겁을 거치면서 생활하던 그 습의 모습, 그것들이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한데 모인 거거든요. 뭉친 거거든. 뭉쳐서 한 사람이 생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억 개가, 억만 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이건 무시하고, 내 속에 자기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일꾼들은 무시하고 자기 사장, 즉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그 하나에서 자기가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부분만 폐허가 돼도 자긴 죽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다.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하는 것도 위로는 자기 자부처와 더불어 한자리한 부처님을 위로 모시고, 아래로는 자기 중생을 제도할 줄 알아야 네 중생 내 중생이 따로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내 중생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이 네 중생 내 중생이 어디 따로 있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중생을 모르고 내 중생을 이끌어 갈 수 없을 때엔 네 중생 내 중생이 아주 낱낱이 수만 개, 억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억만 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인과, 응보, 유전 이런 것이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한 거만치, 그냥 몇 년에 어떤 게 나온다 이런다면 일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당대에 나올 수도 있고 2대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야, 이건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건 누구의 짓이냐 이겁니다. 자기가 한 거만큼입니다. 자기가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 대신에 악을 녹이려면, 인과를 녹이려면, 유전을 녹이려면, 업보를 녹이려면 바로 내가 한 거마저도, 내가 잘했다는 거마저도 놔야 그것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 얼마나, 만약에 피가 많다면 피가 다 녹았을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 우주가 전부 한 피이기 때문에 아마 말라 없어지지는 않았을 테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해서 낱낱이 참 주저주저하고 '야, 이렇게 된 도리에서 내가 이러니까 요거 좀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걸린 겁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시급해요. 이게 놓는 거부터, 맡겨 놓는 거부터, 믿는 거부터, 물러서지 않는 거부터 이게 배워야 그것이 다 홀랑, 나중에는 다 점차적으로 '어, 언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젠 약도 다 필요 없네. 아이고,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어마, 어느 때 보니까 웃고 살게 됐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업보의 인연줄이 없어야 바로 우리가 웃고 살 수 있고, 바로 평화롭고 항상 봄처럼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항상 봄바람이 불면 그 보리이삭이 익어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보리밥을 해서 고추장에 비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이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를 곯리지 않고 항상 사시사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잘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되려고 하지도 말고 닥치는 대로 마음에다 맡겨라.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를 뿐이지 왜 잘됐느니 못됐느니 따지느냐.
그러면 종 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미리 예언해 주시지 않는지

질문 요즘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전쟁 등 참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깨달은 도인이라면 앞으로의 일을 다 예견할 수 있을 텐데 왜 미리 예언을 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많은 큰일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 모든 것이 공(空)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세심(三世心)을 일심(一心)으로 뭉쳐서 공 안에다 넣어라.' 이러는 거는 일체 삼세가 다 공했으니까, 그 공 안의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모두 놔라 이러는 겁니다. 거기 '한마음' 이러면 벌써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소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럴 수도 있고, 내일 이랬다가 모레 저럴 수도 있고, 허허허, 아니, 바꿔 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되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언자는 아예 소인이면서도 도둑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컵을 여기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여기 있다'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잠시 후에 이 컵을 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한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가 정말 있어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한 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께 걸린다면 예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는 소인의 행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본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한 번 들은 게 그대로 있습니까? 종소리 나는 거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먹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귀에다 넣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언을 못 합니다. 종소리가 금방 났다 금방 멎었다 하는데, 어떻게 종소리가 난다고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종소리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종소리가 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소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모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움이 난다, 뭐가 이렇게 생긴다, 또 뭐가 잘못된다 이런 거를 미리 알아서 말하기 이전에, 그거를 막아서 될 일이라면 말없이 막는 것이 옳고, 또 그것이 해서 좋을 일이라면 좋게 이끌어 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렇게 예언을 하거나 내가 한다고 하지는 말아야죠. '내가' 라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알았다'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생명들이 우글우글해서 그 생명들이 그냥 작용을 해 주니까 지금 그 집이 움죽거리죠, 몸뚱이 집이. 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나온다 그런다면 예언자가 컴퓨터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겠죠. 그런데 그건 예언 안 해도 나와요. 하하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올 건 나오는데, 나와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이 나온다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좇아가지 말고, 컴퓨터가 나왔어도, 지금 입력하는 데에 따라서 컴퓨터가 움죽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입력을 하면 악하게 나올 것이고 선한 것을 입력을 하면 선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또 생활에 따라서, 세계의 활동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계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가 제대로 100% 중용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겠죠.

옛날에 접시비행기가 떴다고 그랬죠? 그거는 마음으로 움죽거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움죽거리는 거는 마음으로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움죽거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라도 철저하게 이 공부가 된다면, 우린 아마 마음으로 컴퓨터를 움죽거릴 수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처럼 새록새록 금방 달라지고 금방 달라지고 이러질 못합니다. 이게 잘못 들어갔으면 금방 고쳐서 금방 행하고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마음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련만, 공부를 영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신계를 탐탁하게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이렇게 움죽거린다는 걸 모르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밖에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구와 어떤 행성이 마구 돌아간다든가 태양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태양이 팽창이 돼서 타 버린다, 뭐, 별 요소가 다 많죠?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배운 사람들은요, 콧방귀 뀌어요, 콧방귀! 그 불의 생명이나 물의 생명이나, 바람의 생명이나, 공기의 생명이 다 일치되고 있으니까요. 이러니 이 공부가 사실은 무궁무진하고 어려운 거죠. 하지만 어렵지 않게 생활 속에서 하라고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